

나의 삶 나의 불교학

이재창 박사

나와 함께 공부했던 황수영 박사는 동경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고향인 개성에 돌아온 그가 첫 취직 한 곳은 박물관이었다. 그는 그 인연으로 불교미술과 고고학의 대가가 됐다. 내가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도 황 박사와

비슷하다. 불교학에 뜻을 품고 공부를 시작했 다기 보다 공부를 하다보니 인연에 따라 불교 학을 하게 됐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 시절 대학을 다녔던 나는 대학졸업을 위해 논문 준비를 해야 했다. 당시의 학사논문 제도가 있

어서 대학 졸업을 하려면 학사 학위논문이 필 요하던 때였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던 나는 '경제학의 어느 분야로 논문을 준비하고 공부할 것인가' 고민했다. 당시 거시경제의 대가로 동국대 경제학과 교

수였던故 신태환 교수(前 서울대 총장)가 "자 네 집안이 불교와 인연이 깊으니 불교와 관련 된 논문을 써야하지 않겠나"하며 불교사원경 제와 관련된 논문을 준비해 보라고 권한 것이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였다.

기라성 같은 제자들 키운 것 큰 보람

독립운동가였던 선친, 친일 매도 안타까워

내 불교 공부의 정신적 후원은 선친이다. 어느 자손이 조상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겠나 라는 내 경우에는 더욱 그러해 선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선친의 별명은 종욱(鐘郁)이며 호는 지암(智庵)이다. 독립운동가라고 알려진 선친은 월정사 주지와 조선불교계종의 총무총장(현 총무원장)과 국회의원,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선친은 인천과 상해에 각각 한성 정부와 호상 정부가 세워졌을 때 호상 정부에서 입법위원과 내무부 참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삼익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의거했을 때 사용된 폭탄도 선친이 주선했다. 이때문에 선친은 3년 동안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이후 월정사로 돌아간 선친은 많은 체무로 폐사 위기에 몰렸던 월정사를 지켰고, 일제의 조선불교 병합을 막고자 '31년 산주지체'를 만들었다. 당시 한국불교는 조선조 세종 이후 선교양종이라 불렀다. 반면에 일본불교는 임제종, 조동종 등 여러 종파로 나뉜 종파불교였다. 선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본 불교가 한국불교를 병합하려 하니, 일본 종파에 없는 이름을 찾아야 우리 불교를 흡수 못할 것"이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조선불교계종이었다.

하지만 근래에 혹자가 선친을 친일인사로 매도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일제 당시 총무원장을 하다 보니 발언 등은 어쩔 수 없이 많은가? 일제 때 박사 주지는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했고, 말사 주지는 도지사 허락이 있어야 했다. 독립운동은 숨어서 하니 증명이 쉽지 않고 친일 행적은 증거가 남으니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복이든 해인인 1946년 1월 초 선친이 김구 선생 등과 만남이 있던 것은 유점사 등 여러 사찰의 재정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해방이 돼 젊은 스님들이 불려오자 절절 웃으시며 "잘들 하시게"하고 총무원장에서 물러났던 선친이, 1951년 다시 총

무원장 자리에 오른 것도 선친의 애국 행적이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동국대가 종합 대로 승격될 수 있었던 것도 부산 피난 시절 선친과 친분 있던 문교부 장관 김법린 선생의 공이 컸다.

선친 권유로 진학한 동국대에서 불교학자 돼

나는 원래 서울대에 진학하려 했었다. 당시 입학원서에는 보호자 합의가 필요했다. 서울대 입학원서를 보인 내게 동국대 이사장이었던 선친은 "애비가 동국대 이사장으로 많이 입학하라고 권하고 다니는데 아들이 다른 학교 가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고 하였다. 결국 나는 동국대 경제학과에 진학했다.

신태환 교수의 조언으로 불교사원 경제 논문을 준비했지만 준비하는 사이 학사 학위논문 제도가 없어졌다. 비록 논문 제출은 못했지만 논문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내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경제학과가 아닌 불교학과로.

1960년 전임이 됐다. 한학기 3과목 책임 시간을 채우다보니 불교문화사, 영어불전 강독, 불교경전개설 등 불교사원경제 외의 과목도 강의했다. 강의를 하려면 수업시간 보다 몇 배 되는 시간을 준비해야 했고, 그만큼 내 공부도 무르익었다. 1993년 정년 까지 33년 동안 불교학 연구에 매진했다. 불교학 연구의 즐거움은 좋은 스승과 도반들을 만나 덕했다. 특히故 권상로 박사, 김동화 박사, 조명기 박사, 김영섭 박사 등이 분들에게 사사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

인문계 대학교수는 예나 지금이나 궁핍 하지만 이 때문에 대학교수 시절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 이공계는 외부 연구를 수수하라는 거액이 지급된다. 본인과 제자가 여유 있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지만 인문계는 그렇지 않다. 근래 불교계에서 연구자 지원이 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불교학자 외국어 습득에 주력해야

불교사를 연구하다보니 한문 자료를 주로 봤다. 학부 시절 틈틈이 해문 덕에 영어도 잘했지만 영어와 독어 등 서구권에는 한국 불교사 관련 자료가 없었다. 내가 영어를 전공을 강요했던 이유는 불교학 공부하는 학생들의 영어가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문에 편중된 공부를 하다 보니 다른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불교학을 하려면 팔리어와 범어, 티베트어는 필수다. 1960년대 티베트어가 등장하면서 학계에는 티베트어를 배워 한문경전 번역의 오류를 찾는 트렌드가 일어났다. 범어와 티베트어는 같은 어계로 번역시 오류 가능성이 적다. 반면에 범어와는 다른 어계인 한문은 번역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교학자들은 이제 영어는 물론 한문, 범어, 티베트어, 팔리어 등 다국어룰 구사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단순히 외국어 구사능력만 보더라도 5~6개 국어에 이른다. 신진 불교학자들의 노력은 대중들로부터 칭송 받아야 한다. 불교학자 자신도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평생을 불교학자로 살아온 내 삶에 불교는 생활의 지침이었고 연구의 대상이다. 목정배, 오형근, 권기중, 서윤길 등 1980~1990년대 한국 불교학계를 주름잡던 학자들이 모두 내 제자다. 평생을 쏟아 양성한 제자들은 내 삶에 커다란 자부심과 보람이다.

잘못된 불기 반드시 수정돼야

불교학자로서 당연한 신심과 수행 이야기 대신 나는 불기 문제를 말하고 싶다. 율해는 불기 252년이다. 하지만 태국 등에서는 2551년으로 표기한다. 우리나라의 불기가 1년 빠르다. 내 삶에 가장 안타까움이 있다면 불기 오류를 정정하지 못한 것이다. 불기 오류는 1992년 세계불교도회의(WFBC)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면서 처음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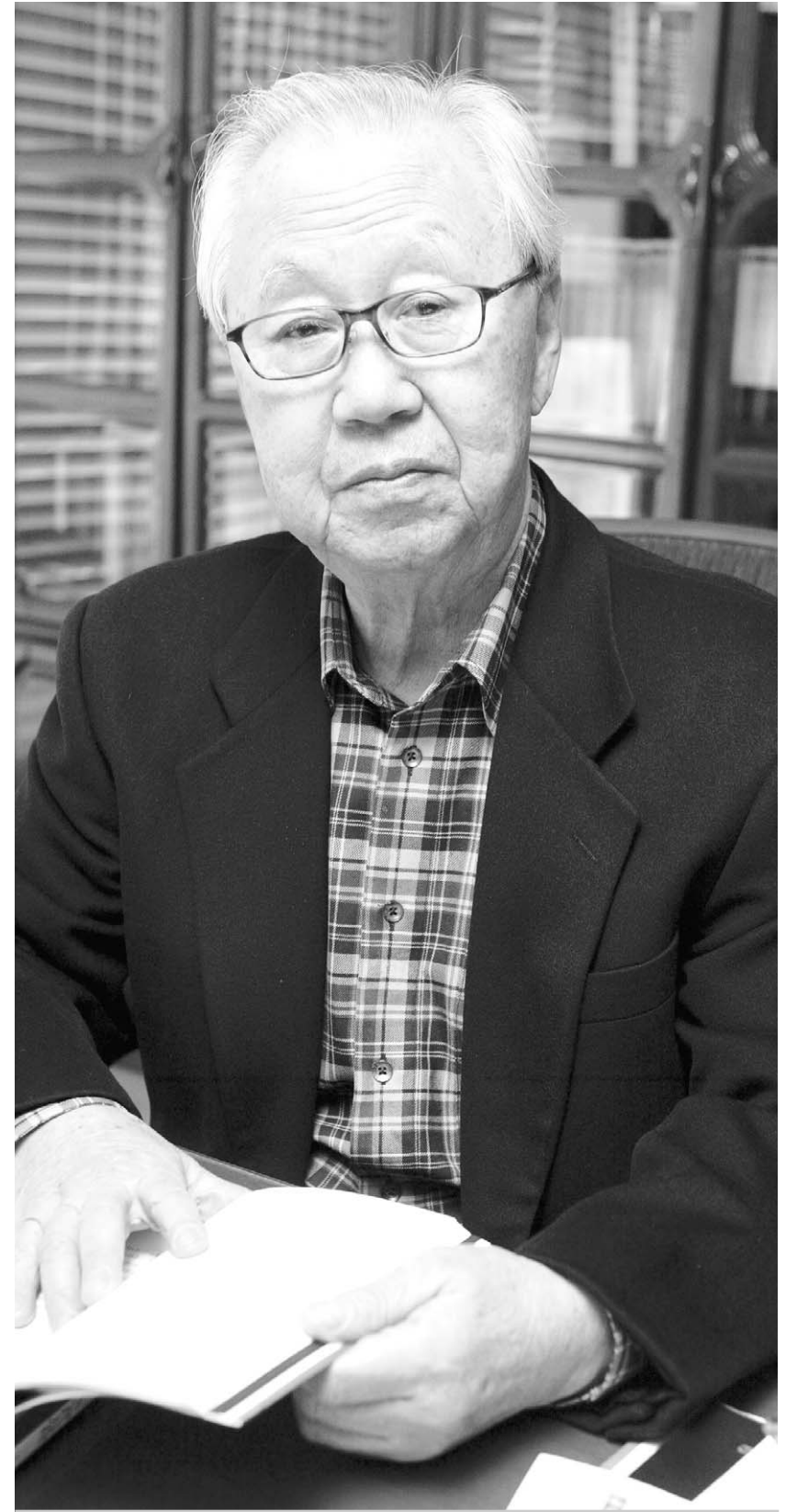
려졌다. 총회 1주일 전 대회 점검왔던 태국 본부 직원들이 불기가 틀린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미 인쇄까지 마쳤으니 잘못된 사실만 알고 그대로 진행하자고 한 것이 현재에 이르러 된 것이다. 후에 한국본부장이던故 박동기 교수와 WFBC 한국본부 이사회를 열어 이를 고치려고 했었지만 못했다. 2월 각 종단에 협조공문이 발송됐지만 이사회가 가을에야 열리면서 잊혀진 것이 이유였다.

한국은 고구려 의연 스님이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배운 석가모니 부처 탄생해를 기준으로 불기를 사용했었다. 의연의 기준이라면 올해는 3034년이다. 불기가 대중화된 것은 한일합방 이후다. 일본 연호가 쓰기 싫어 불기를 쓴 것이 이유였다.

1956년 제4회 불교도 대회 때 남방, 북방의 불기가 모두 틀린 것을 통일하자고 해서 합의한 것이 지금 사용하는 불기다. 이런 신도간 합의정신은 개신교도 같다. 예수 탄생 시점과 서기 시작점이 실제 4년 오차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는 변함이 없다 해서 지금의 서기를 유지하는 것과 같다.

왜 우리가 사용하는 불기가 태국 등에서 사용하는 것과 1년 정도 오류가 있을까? 1956년 12월 불기를 통일하면서 2500년으로 한다고 정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당시 기준은 이듬해인 1957년 스리랑카에서 열릴 불기 2500주년 기념 준비를 앞두고 정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참석자들은 영어가 서투르 1956년부터 불기 2500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사용해 왔다. 이후 잘못된 불기를 바로 잡으려 수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한 것은 우습게도 매년 여름 미리 제작되는 이듬해 달력 탓도 있다. 총회는 가을에 열리는데 이미 달력 제작을 여름에 끝내니 수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내게 바람이 있다면 불기가 바로 고쳐졌으면 한다. 당장 고치기 어렵고 혼란이 우려되면 정정된 불기를 신불기라 하면 되지 않은가?

정리=조용섭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이재창 박사는 1928년 강원도 평창 출생. 철학박사.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동국대에서 불교대학장, 불교문화연구원장, 대학원장, 불교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한국불교학회장과 금강불교대 학장 등을 지냈고,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로 재단법인 동국학원 이사로 재임 중이다. <한국불교 사원경제 연구> <불교 경전의 이해> 등 저서와 <조선조 사회에 있어서의 불교교단>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성불암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93-1번지
- 대표자 : 도신(지양연)
- 사찰명 : 광통사
- 주 소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매암리 161-4
- 대표자 : 해광(이종필)
- 사찰명 : 극락정사
- 주 소 : 경북 밀양시 내이동 923-1번지
- 대표자 : 해인(김외조)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삼사순례 및 정월방생

본 용연사는 태조왕건의 기도처로 알려져오다 중창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는 도량입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이르길 왕건이 개성으로 진군할 당시 몸이 쇠약하여 이곳 서흥사지에 머물러 기도한 곳입니다. 도량요엔 800만평의 호수가 있어 예로부터 방생터로 이름난 곳이며 교통의 편리성으로 불편없는 용왕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20분내에 좌불상 각원사와 보탑사, 성불사, 광덕사로 삼사순례의 최적지입니다

안 내

- 방생터내 버스 100대 동시 주차가능
- 도량내 버스 20대 주차가능
- 사전예약시 무료공양 (별도공양비없음) 일주일전 예약
- 방생터내 상과향로촛대 설치, 스님좌복구비
- 외래어종방생금지
- 독립기념관 무료입장

■ 예약전화 041)554-8080

■ 오시는 길(방생터) 경북선 목천 TG → 독립기념관 → 용연저수지 대주차장

태조산 서흥사지 용연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240